

전북교육청 올해 추진정책 핵심은?

김승환 교육감 신년기자회견

학교자치·교권보호 실현
“법률 개정 등 최선다할 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1일 오후 1시 학교자치 실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전북교육청의역점 추진 정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학교자치활성화위원회를 꾸려 교사,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학교자치기구가 법제화 될 때까지 법률적 기구에 준하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이던 학교자율선택사업은 단위학교에 운영 재량권을 대폭 넓기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전북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도 학교자치 구현이라며 어려움은 있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로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들은 과감히 폐지해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전북교육청의역점 추진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교권 침해 행위는 엄중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사회세력,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교원 권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들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권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고교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수업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올해

4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대체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계고교 교사들에게는 5년 이내 최소 1회의 연수 참여를 권장하고, 학년말에 이뤄지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워크숍을 전북교육연구원과 연계해 교원연수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세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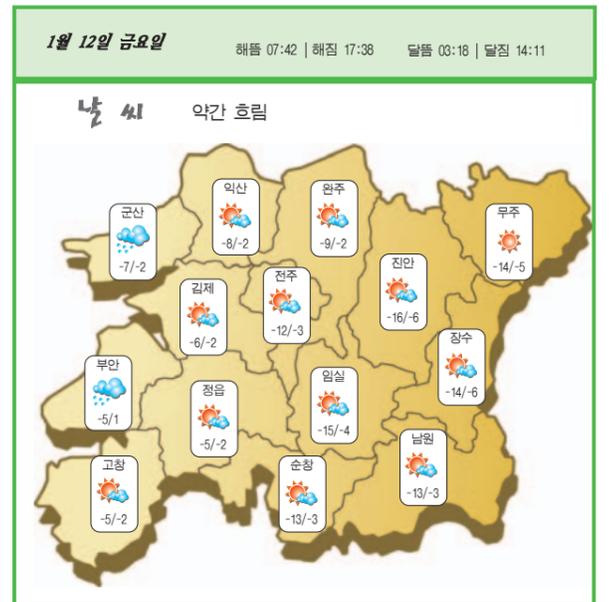
기초학력 미달문제를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새학기부터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첫걸음지원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초·중등 성장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원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

제고사식 선다형 중학생 학력진단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보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면 의무급식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제 의무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전북교육가족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전북교육을 변화시켰다. 전북교육이 미래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올해도 아이들만 바라보며 뚝뚝뚝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근 기자



과학문화로 키우는 지역인재 눈길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초등생 대상 과학체험교실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생활과학교실이 보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스토리텔링형 과학 체험 교실을 열어 관심 받고 있다.

테마별 스토리텔링형 과학체험 교실은 과학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과학문화확산사업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 창의재단이 주관한다.

지역사회 과학문화 저변 확대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자발적이고 역량 있는 과학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문화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다.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11월 ‘2017 하반기 과학문화확산사업’에 선정되어

2개월 가량의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거쳤고, 5개의 테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올해 1월부터 과학체험 교실을 열고 있다.

군산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주택, 항구, 진포대첩, 의복, 풍력 등 5개의 테마를 선정하였다. 각 테마별 스토리텔링형 과학체험 세부프로그램 15개도 개발하였다.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우수창 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과학 문화확산사업을 통해 인문학적 요소와 과학적 원리를 접목하고, 군산지역의 특색있고 체계화된 양질의 과학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된다”면서, “군산 지역 기반의 신규 콘텐츠로 군산지역의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내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힘을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교육지원청, 자유학기 우수협업기관 선정

전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017년도 자유학기제 내실있는 운영과 체험 인프라 확대, 협업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자유학기 우수협업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우수협업기관으로 익산에 소재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도 그간의 항공체험, 산림교육 등 학생체험 제공 공적을 인정받아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자유학기 협업기관 표창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 시행이후 매년 자유학기제 유공자 및 유공기관을 표

창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시도교육청, 협업기관, 우수사업의 분야에서 총 700여개의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전북에서는 유일한 기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지 2년째이고 동시에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하는 시점에서 표창의 의미는 더욱 뜻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익산지역에는 26개의 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170시간 이상의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

동 등의 영역을 인내하여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의 수업을 마련하고 학교별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핵심교원 연수를 비롯하여 학부모 연수, 체험처 담당자 연수, 꿈끼동행 나눔(컨설팅), 대학학과체험박람회 참여, 진로체험정보지 ‘꿈두레’ 제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교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내실있는 운영 등 공로 인정

중심의 전문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현장감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개선 연수를 제공하여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다.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학생의 꿈과 적성을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자유학년제, 연계학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과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을 표적하였다.

2017 자유학기 유공자 및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은 1월 26일 더케이호텔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내달 28일까지 입학원서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2018년 최고위과정(ACE)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60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공·사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 기관장급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 지점장급 이상의 금융기관 간부, 도단위 각종 사회단체 대표, 변호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입학원서는 전북대 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topace.jbnu.ac.kr>)에서 지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고위과정은 3월초부터 국내 최고의 스타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며, 국내외 연수와 체육·문화행사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남호 총장(최고위과정장)은 “최고위과정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최고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영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가 아니라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